

哲學概論(三)

李載薰

李載薰 先生이 執筆하여주신 哲學概論은 昨年五月以後 編輯者의 失手로 中斷되었다가 이제다시 繼續하게 되었음을 讀者와 筆者에게 깊이 謝하나이다.

二. 歷史的變遷

以上論한바는 哲學의 發祥地인 希臘에 있어서의 哲學의 語義를 中心으로 說明이었지만 이제 哲學의 變遷의 歷史的意義를 概觀하고자 한다. 前論한바로 大概推知하겠지만 希臘에 있어서는 哲學의 對象은 이 有爲轉變하여 마지않는 變化의 世界가 아니고, 이것으로써 생각할수 있는 根源 또는 萬物의 根 即 原理라는것이였다. 이 雜多한 現象이 이같이 存在하려면 前提하지 않으면 아니될 한 根據가 있어야만 한다. 그 現象의 根本理由 또는 本質을 假定하지 않고는 어떤것이나 알수 없다는것이, 그네들의 共通한 態度이였다. 希臘의 神話는 無論이요, 소크라테스 以前의 哲學이나 그후의것이나 即 例컨대 플라톤의 理念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形象같은것은 다 이러한 性質이였다. 이러한 原理라든가 根源이라든가는 變化하기 마지않는 世界안에 있는 事物을 支配하는 法則이다. 그것에 秩序와 調和를 주어 全體로써 統一하는것이 다. 四時의 運行으로부터 萬物의 生死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이 法則밖에 있는것은 없다. 世界라는것은 一言하면 이 法則으로써 制限되며 限定되어 있는 것이며, 그 意味에 있어서 世界는 純全히 調和를 가진 美의 世界이다. 無限 한 世界이라든가는 眞, 美, 善밖에 ■이다. 即 法則의 支配하는 世界는 調和 를 가진 完成한것이다. 이것이 고스모스라든것 即 英語의 고스모스의 語原이 며 우리가 宇宙라고 翻譯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世界는 混沌한것이 아니며 限界를 가진 調和를 가진 統一되어있는것임을 알수 있으며, 이 意味에 있어 서 世界는 不可思議한것 또는 靈的으로 보이는것은 當然한것이라고 말하겠 다. 이것으로써 推知되는바는 希臘人의 世界觀 人生觀의 背景과 地盤으로 되

어 있는것이 이 코스모스라는 原理임을 發見할수 있다는것이다. 이 原理를 떠나서 그네들의 生活 學問 藝術 政治 道德같은것은 생각하기 어려운것이다. 希臘人은 日常 實際生活에 있어서도 無限한 慾望을 滿足시킨다는것은 볼수 없는것이며, 오즉 調和있는 生活을 希求하고 있었든것이다. 쏘크라테스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며 오직 知를 사랑할뿐이라는 말도 이 知의 有限性을 말한것이니 그 사람의 有限的 完成을 얼마나 重하게 여기었는지를 알수 있다. 피우타고라쓰가 數를 根本으로 한것 플라톤의 理念과 理性의 一致說같은것 아리스토텔레스의 形相 또는 中庸說等 어느것이냐 이 코스모스의 現實이 아닌것이 없다. 社會生活에 있어서 各個人이 自己의 任務를 完成시키며 다른 사람에게 干涉하지 않는다는 正義의 觀念을 基調로한 共和政治를 가지고 있는것 또는 建築에 있어서 完成的 調和時에 있어서의 脚韻法같은것은 다 同一한 精神의 表現이다. 이와 같이 自我와 世界의 共通 原理로서의 코스모스야말로 哲學思想을 支配하고 있었든것이며, 이것은 結局 希臘人の 現實生活이 그런 地盤우에 있었다는것을 말함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眞實하고 偉大한 思想이 決코 한 個人의 主觀的 任意로 만드는데도 아니며 單遊戲를 일로 삼는 思索이 아니라는것을 알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生活은 決코 固定하여 同一한 狀態에 머물로 있을수 없는것이니, 이것을 希臘에서 보면 希臘 諸都市는 政治上 獨立을 잃으며 따라서 共同生活의 秩序를 破壞하게 되었다는 悲運을 當하게 된것이다. 希臘人은 인제는 民族的 國家로서의 앞길의 光明을 잃어버리었다.

一般市民은 이때에 世界主義的 傾向을 取하지 않는다면 反對로 利己主義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現實生活의 地盤의 動搖는 곧 哲學的 精神의 動搖와 轉向을 일으키게 된것이다. 哲學은 이리하여 實際生活에 있어서 安心立命을 일로 삼든가 個人의 幸福 修養을 即 一種 處世術이라는것을 哲學의 任務라고 생각하게 된것은 또한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이 ippet함이 없는 現實生活에 있어서 自己의 安住할 곳을 찾으려고 한 哲學은 그 期待함에 背反하는 일이 많았다. 힘쓰면 쓸수록 더욱 더욱 不幸과 不德을 意識할 따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에 또한 東西의 文化 希臘思想과 猶太의 宗教思想이 混入錯綜하게 되어 哲學은 스스로 또轉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든것이다. 이 轉向이라는것은 무엇이었던가.

安心立命이라는것은 結局 사람의 힘으로써 얻을바가 아니고 반대로 사람의 不完全 하다는것이 새로이 通感하게 되어 安全立命은 自己의 힘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요, 自己를 超越하는 偉大한 힘 即 神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이였다. 이것이 即 中世紀 世界 現實的 生活의 地盤이 向하고 있는 길

이었다. 여기에 中世紀文化의 統一點이 希臘의 것과 달리 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果然 中世紀에 있어서 精神的 諸勞作이 大概 神을 問題로 하게 되었다는 것도 또한 當然한 것이라 하겠다. 神을 떠나서는 이 轉變하기 마지 않는 세계와 사람의 生活로 말하면 純全이 暗黑 그것이었다. 이리하여 宗教生活이 새로운 哲學의 出發點을 만들게 되었다. 이 哲學이 希臘哲學思想을 充分히 活用하며 利用하였다는 것은 無論이지만 그네들의 人生觀 世界觀으로 말하면 스스로 그 色彩에 있어서나 意味에 있어서 獨特한 것을 가지고 있었든 것이다.

爲先 사람으로 말하면 哈느님의 創造物이다. 우리 現實世界로 말하면 完全 唯一한 세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세계의 幸福을 求한다는 것은 到底히 不可能한 것이며 도리어 이 不完全한 一時의 세계를 嫌惡하며 오직 神의 나라와 來世의 約束下에 산다는 것을 우리의 幸福으로 삼게 되었든 것이다. 希臘人에 있어서 그 自身完成한 調和를 가진 세계가 中世紀에 이르러서는 世上萬物은 오직 神에게 向하고 있으며 神의 意志는 힘으로써 存在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創造 主로써의 神과 被造物의 세계와는 截然 區別 되어 있다. 神과 세계는 오직 天使로써 連繫되어 있다. 中世人이 希臘人과 달리 現世에 있어서 物的世界보다 靈的世界를 重히 여기며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靈的世界의 存在가 學問과 生活의 中心問題이었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希望가운데 天國에 간다는 것 永生한다는 것 이것보다 높고 큰 것은 없었다. 希臘的 圓環的 調和의 세계에 對하여 神의 意志로써 規定된 順序的 即 階段的 世界가 中世紀의 決定的 世界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때에 哲學의 職能은 어떤 것이었든가 神學을 中心으로 한 哲學이 結局 創造主 또는 萬物의 父인 사랑의 神이 그리스도으로써 人類의 罪惡을 救한다는 宗教的 信仰을 그네들의 思想으로써 解釋說明한다는 것이 바로 그 第一이 職能이었다. 中世哲學이 希臘哲學으로써(初期는 플라톤 後期는 아리스토텔레스의 學說) 說明 辯護 證明한다는 風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哲學者는 大概 그리스도敎의 敎父 學師이었든 것이다. 이時代哲學이 이와 같이 敎義說明論證에 있기 때문에 普通哲學者는 이時代哲學을 『神學의 奴婢』라고 稱하며, 哲學은 그 獨立性を 잃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에 對하여 나로서는 여러 가지 異論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은 그 問題에 들어가 고저하지 않는다.

所謂 哲學의 「奴婢」라는 것은 哲學의 生命인 理性이 信仰앞에 屈服하며 그 自律性を 잃어버리었다는 것을 말함에 있다. 一例를 들면 有名한 敎父 테

루데리아누스(註一)가 말한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입었다 이것은 不合理的하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그이는 埋葬한 後 誕生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確實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理性보다 信仰의 힘이 얼마나 強大하였는지 容易이 推知할수 있다. 그러나 이 信仰과 理性의 關係는 其後 스코라哲學 全盛期에 들어가자 여러 가지로 變容을 하게 되었으나 여기에 一一이 論할 必要가 없기로 一言으로 時代의 哲學概念을 總括하여 두고 말겠다. 即 神의 認識을 目的으로하는 知識이 말하느냐 哲學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스코라哲學의 完成者인 토-마스아퀴나스(註2)가 말하기를 神의 認識을 唯一한 일로 삼는 哲學的考察이야말로 人生의 最高目的이라고 말함에 비추어 생각한 것이다 토-마스는 實로 中世紀 哲學思想을 代言한다고도 볼수 있는 것이다.

要컨대 中世紀에 있어서는 모든 生活이 宗教의 束縛받기를 政治學術로부터 日常生活의 慣習風俗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宗教와 關係가 없는 모든 學術이 自由스런 發達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當然한 일이다. 따라서 蒙昧한 民間에 있어서는 迷信妄說이 流布되어 도리어 人心을 亂擾시키며 生活이 不自由스러웠다는 것은 容易이 像想할수 있을뿐 아니라 歷史의 記錄이 가르키고 있는바이다. 여기에 그네들은 漸漸 神에 對한 智識(信仰)과 世界에 關한 智識(理性)의 區別을 생각지 않을수 없게 되었든 것이다. 더욱이 一四五三年 東羅馬 滅亡前後 多數한 東方學者가 古典을 가지고 伊太利方面으로 逃走하여와 大學과 民間이 그 古典을 가르친 것이 直接 큰 原因이 되어 急速히 그리스도敎의 束縛으로부터 버서날 氣運을 가지게 되었든 것이다. 이리하여 한거름만 거르면 神과 사람의 地位는 轉倒하리만치 되었다. 스코라哲學의 沒落은 神에 對한 自然의 光明이 사람을 引導할 때이다. 即 사람의 理性이 다시 머리를 들고 일어섰다. 이 새로운 時代를 우리는 普通 文藝復興期라고 稱한다. 史家 마이야는 『이時代의 精神을 說明하여 말하되 西歐羅巴 諸國民의 知識이 스스로 開發하여 漸漸 크리스도敎의 束縛을 버서나 希臘 羅馬의 古典을 가까이 함으로 이 世上과 外界를 自由스러이 感觸하며 思索하며 考察하고자하는데 이르렀다』고 한다. 即 이 時代는 사람의 힘으로써 現性으로써 人間的 知識을 求한다는 中世紀에 對한 말하자면 反抗이라고 볼수 있다. 神에서 떠난 사람의 形姿를 보게 되었다. 고스모스로부터 떠라며 神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갈곳은 오직 自己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사람은 自己의 唯一한 것으로 依賴할곳은 自己自身の 힘 即 理性의 힘 밖에 없었다. 이意味에 있어서 自己에 關한 知識을 求하였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如何든 여기에 우리는 知力을 信仰으로부터 다시 獨立自存하게 됨을 보게되었다. 예-콘(註三)

이 「知的 힘이다」라고 말한바 이말은 實로 近世의 精神을 가장 適實하게 代表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루-텔(註四)이 宗教改革을 한것도 決코 過然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믿는 힘 即 信仰의 힘으로써만 사람은 救함을 받는다고한 改革의 精神으로 말하면 結局 이와 같은 時代의 精神이라는 큰 波濤의 한물결에 지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希臘時代 中世時代와 다른 近世로 말하면 純全이 人間中心主義 또는 理性中心 主義라고 말하겠다.

神을 떠난 諸學問은 自由로운 길을 밝게 되었다. 天文學 數物理學 生物學等 諸科學의 發達は 人文의 進歩에 特異한 貢獻을 하였다. 大膽히 自己의 學說을 發表하기 때문에 皮땀 흐르는 鬪爭과 迫害 殺害같은 慘變이 있었던 것은 周知하는바이다. 何如間 이 近世精神은 各其自己의 있는 能力을 唯一한 武器로 하고 競爭하며 다투었다. 外部로 오는 權威는 個人을 束縛할 餘地가 없이 되었다.

이때에 우리의 世界는 神秘的의것도 아니요, 靈的의 것도 아니요 오직 사람의 慾望을 滿足시킬 것 또는 往復을 當할 對象에 不過하였다. 따라서 自我와 世界의 關係는 全然 地積關係로 交涉하게 된 것이다. 이 知的關係는 爲先 科學的 知識일것이며, 科學은 그 目的하는 바를 達하기 爲하여서는 技術의 發達에 依支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技術을 떠나서는 自然을 征服한다는 目的을 達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征服을 當할 對象인 世界가 靈的 아니요(靈的이라 하면 自由로이 그것을 支配할수 없는故로) 物質의 世界그것이였다. 一時 機械的唯物論이 나타난것도 結局에 潮流의 한 흘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近世는 사람의 知力이 優位에 있었다는 것은 無論이다. 말하자면 사람의 知力の 合理化이였다. 特히 注意할바는 이 科學의 進歩와 自由競爭은 資本主義 社會의 成立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商品化하게 되었으며 사람의 活動의 目的은 따라서 利潤利益이라는데 있었다. 利를 爲하여 다투며 利로써 結合도 하며 分離도 하게 되었다는것이 社會生活의 現實相이라고 보게되었다. 大略 이것이 루네싼스로부터 二十世紀에 이르기까지의 現實生活의 움지김이였다.

그러면 이 時代에 있어서 哲學은 如何한 性格 또는 形態를 가지었으며, 가지지 않으면 안되었는지를 以下 알어보고저 한다.

註一. 헬름리아누스Tertullionus 生死年 不明, 大略(一六〇-二二二頃)칼타고出生 初代 基督教 敎父 哲學及 法學을 學修하고 基督教 及 社會를 爲하여 奮鬪하였다. 더욱이 카톨릭 敎會 成立을 爲하여 많은 功勞가 있었으며, 또 基督教經典文學에 創造者이라고 한다.

註二. 토-마스아퀴나쓰 Tomas Agiunas 一二二五 - 一二七四 南伊太리아퀴노 市 出生家系로 말하면 中世紀 貴族의 血統을 가지고 있었다. 人權으로써 말하면 純全

한 歐羅巴人이다. 토-마스가 어머니 胎안에 있을때만 母親에 對하여 子息이 將來에 偉大한 學者가 되리라고 豫言한이가 있었다고 하는 逸話가 남아 있으나 事實 토-마스는 當代의 思想家로서나 精神生活者로 無比하였을뿐 아니라 哲學史上 今日까지 주는 影響이 적지 않다. 少時부터 恒常 神은 무엇이나 하고 質問을 하였다고 한다. 토-마스가 希臘哲學中에서도 特히 아리스토텔레스의學說을 사랑하였으며 波頭하여 있었음은 後年 토-마스를 中世紀아리스토텔레스라고 稱한 것을 보아도 알 것이다. 敎皇이 修道院長의 榮職에 就任하라고 勸 하였지만 辭退하고 終生無名의 한 僧侶로 敎授와 說敎로 바쁜 歲月을 보냈다 其間에 많은 著書도 하였다. 토-마스의 學說이 크리스도 敎義에 如何한 構成을 가지고 있었는지 루텔主義와 對立함으로 有名한 트렌트宗會議를 열었을 때 그 中央과 노인冊床우에는 두卷에 冊이 있었는데 其一은 書璽이며 또하나는 이 토-마스의 神學大系이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一二七四年 三月七日 修道院에서 別世하였다.

註三, 예-콘 Bacon 一五六一 - 一六二六年 政治家의 家庭에 出生하여 政治家가 되려는 目的下의 敎育을 받았다. 高等法院長 樞密顯問官等 榮職에 就任하였으나 그사이에 哲學研究에도 精進하고 있었다. 여기에 英國人의 特色을 볼 수 있다. 大學의 在學時代부터 學問의 革新 特히 中世紀學問에 對한 改革의 必要를 切實히 느끼고 있었다. 知는 힘이다 하는 말은 知를 目的으로 생각하는 現象的 學問이 對抗함을 意味한다. 이 知를 手段視하는 態度는 後世 榮光에서 生長한 經驗論 功利主義的 思想의 淵源이 되어 잇는바이다. 自然認識의 方法論인 歸納法이 近世科學의 基礎가 되어 있었음을 볼 때 예-콘의 貢獻이 亦是 偉大한 것을 알 수 있다.

註四. 루-텔 Luther 一四八三 - 一五四六 獨逸宗教改革家 坑夫階級の 賤한 家庭에 出生 貧困한 中에 工夫하였다. 小時부터 維典語의 聖書를 精讀하였다고 한다. 루-텔이 처음 信仰心을 가지게 된 것은 兄弟의 死亡과 더욱이 親舊의 落雷로 인하여 急死함을 目擊함으로부터 始作되었다고 傳해온다 父親의 反對에도 不顧하고 아우그스티누스 修道院에 들어가 僧侶의 資格을 얻었다. 루텔의 改革는 當時 宗教制度의 腐敗하였음에 起因하고 있었다고 한다. 高僧等의 俗惡亂行과 免罪符賣買等에 對하여 큰 不滿과 不平을 가지고 있었든 것 같다. 免罪符를 사면 如何한 罪도 消滅하며 따라서 高價로 사면 重大한 罪도 救한을 받는다는 것은 所謂 信仰을 冒瀆[瀆]하는것이라고 하며 九十五個條의 抗訴文을 敎會門前에 붙였다 이 攻擊에 法王은 六十日以內로 그 所說을 取消하라고 要求하였다. 루-텔은 여기에 反抗하여 그 破文狀을 윗템벨히 門前에서 불에 태워 버렸다. (第十一頁에 繼續)